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0.(화) 08:00 배포 2026. 11. 10.(화) 08:00

청와대 사랑채, 강원 지역문화 상징하는 전시와 특별공연 선사

- 11. 11.~12. 31. ‘3특’ 제주, 전북에 이어 강원을 주제로 지형과 자연환경 속에서 형성된 강원 고유의 지역문화 조명하는 기획전시 개최
- 11. 14. 강원 특별전 개막 기념 ‘계촌별빛오케스트라’ 특별공연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원(원장 정광렬)과 함께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와대 사랑채 1층에서 기획전시 ‘섬·들·산 솟아오르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6월 4일부터 선보이고 있는 5극 3특 문화콘텐츠 상설 전시 ‘팔색찬란: 케이로 가득한 지역(~12. 31.)’에 이어 ‘케이-컬처’의 바탕을 이루는 ‘3특’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와 그 뿌리를 조명하는 기획전시의 일환이다. 지난 9월 제주, 10월 전북 특별전에 이어 이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다채로운 지역문화를 선보인다.

강원 지역 창작자의 시선으로 지역문화와 삶을 새롭게 해석,
‘계촌별빛오케스트라’ 특별공연(11. 14.), 매주 수요일 ‘문화요일’ 정기 공연 개최

이번 강원 특별전에서는 ‘치유의 터전, 강원’을 주제로 강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창작자와 기획자 등이 외부의 시선이 아닌 지역 내부의 관점으로 지역의 문화와 삶을 새롭게 해석한다. 그리고 12월 2일부터는 제주, 전북, 강원 세 지역의 문화자원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종합 특별전을 선보인다.

아울러 강원 특별전 개막을 기념해 11월 14일(수)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2층에서는 평창군 계촌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계촌별빛오케스트라’가 특별공연을 선사한다. 2009년에 폐교될 위기였던 계촌초등학교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오케스트라단을 구성하고 ‘계촌클래식축제’에 참가해 축제의 대표 공연 콘텐츠가 되는 등 문화예술 활동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번 특별공연에서 어린이 연주자들은 밀도 높은 합주를 통해 지역 문화자원이 지닌 울림과 희망의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 기간 중 매주 수요일 낮 12시 10분에는 '문화요일' 정기 공연을 개최한다. 울산의 팬올린디(11. 11.), 강원의 음악공장(11. 18.), 부산의 비더블유시(BWC)댄스컴퍼니(11. 25.) 등 지역문화재단과 문화도시가 직접 추천한 지역예술인들의 무대가 이어진다.

이 밖에도 11월 18일부터 제주 출신 연극배우 한송희, 부새연, 어린이극 전문 배우 안세희, 이예슬이 전시 해설사로 나서 이야기와 임무를 결합한 전시 관람 프로그램 '프로젝트 케이'를 진행한다. 어린이·가족·외국인 등 다양한 유형의 관람객들이 전시 콘텐츠를 입체적으로 경험하고 관람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과 참여 방법은 청와대 사랑채 누리집(https://cwdsarangcha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기획전은 제주와 전북에 이어 강원까지,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이 어떻게 '케이-컬처'의 바탕이 되는지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람객들이 이번 전시와 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가 지닌 멋과 흥을 직접 경험해 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기획전시 포스터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시설기획과	책임자	과장	김훈 (044-203-2651)
		담당자	사무관	안승현 (044-203-265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자유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